

착용자 인상효과의 시간적 안정성
- 의복범주,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 변인을 중심으로 -

김 재 속 · 김 희 속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Temporal Stability of Wearer's Impression Effect
- The Accent of Garment Category, Fashion-Level and Wearer's Body Type -

Jae-Suk Kim and Hee-Suk Kim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1. 10. 19 접수 : 2002. 1. 15 채택)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rment category, fashion-level and wearer's body type on the basis of temporal stability and to extend the contextual framework.

The result was as follows

- 1) On the basis of temporal stability, Korean style, classic style, and large body type have more temporal stability than western style, fashionable style, normal body type.
- 2) On the basis of temporal stability of impression dimension, impression of appearance have most temporal stability, next good-bad, next evaluation, next potency, and sociability.
- 3) In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impression of evaluation, western, fashionable, classic style have the greatest interaction effect. In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impression of appearance, western style, normal body type have the greatest interaction effect. In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impression of good-bad, western, fashionable style have the greatest interaction effect.

It is concluded that the results support the context framework on impression formation.

Key words : temporal stability, impression of appearance, Korean-western style, body typ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Kaiser(1990)는 맥락이론에서 외관의 의미는 큰 문화적, 역사적 맥락 내에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고 이해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복식의 인상차원에 대한 시간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인상효

과의 시간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대인지각과정에서 시간이라는 중요한 맥락 안에서 인상효과의 시간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연구였던 1991년에서 얻어진 측정값과 1991년과 동일한 피험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에서 얻어진 측정값을 가지고 시간적 안정성을 기초로 인상효과를 분석 하고자 하였다. 즉 자극물의 인물평가에 대한 인상효과에 있어

서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변인들과 맥락적 변인인 시간적 안정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목적

인상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변인의 시간적 안정성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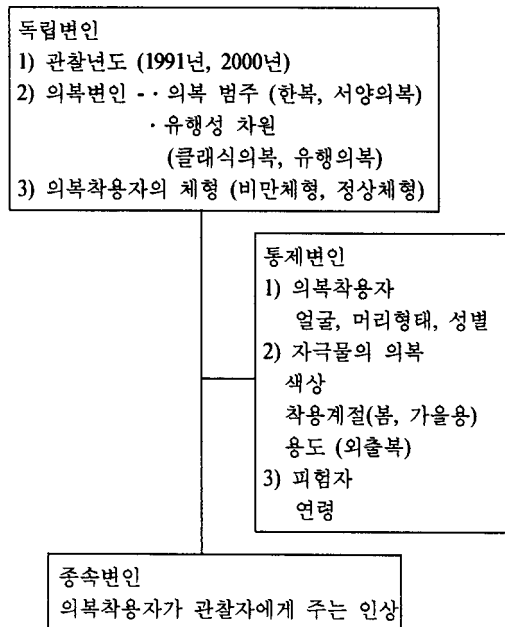
- 1) 어떤 변인이 시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가?
- 2) 어떤 인상 차원이 시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가?
- 3) 시간 변인과 상호작용이 있는 인상 단서는 무엇인가?

3. 연구의 변인들

연구의 독립변인과 통제변인 사이의 인과모형을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맥락 이론(Contextual Framework)



<그림 1> 연구의 변인들

Kaiser(1990)는 의복과 외모의 의미는 그것들이 발견된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의해 변경되고 강화된다고 하였다. 맥락적 견해는 사람들이 문화적 또는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상황을 고려함으로써 어떻게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외모를 관리하고 지각하는지를 연구한다. 맥락적 견해는 맥락뿐만 아니라 맥락들 사이에서의 의미의 풍부함을 연구하며 문화적 토대 내에서 통합된 새로운 의미를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맥락주의적 견해의 기본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과 외모의 의미는 그들이 발견된 맥락에 의해 변경되고 강화된다. 맥락은 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결과를 이끄는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해석과 지각자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둘째, 의복과 외모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유행변화의 역동적인 과정의 부분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역사적 맥락은 시간과 관계된 3가지의 구성요소 즉, 의복의 의미가 시작된 과거, 상황적 상태 또는 사회적 관계가 현재의 의미를 유지, 또는 변경하는 현재,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사회생활은 혼란과 연속의 복잡한 혼합체이다. 넷째, 의복과 외모의 의미에 대한 발견은 변화와 연속의 탐구과정이다.

2. 시간적 안정성(Temporal Stability)

Fenigstein, Scheier, Buss(1975)는 사회 심리학 분야 중에서 성격특성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문화적 상황 비교와 시간적 안정성을 기초하여 연구하였다. 이로써 사회적 행동의 규칙성과 일관성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일관된 성격특성을 발견하고 사회적 행동 범위를 정하고자 하였다.

Lennon(1997)은 신체적 매력과 나이와 체형과의 기능적인 관계를 알고자 1988년과 1997년 즉, 10년의 시간적 차이를 두고, 나이와 체형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실험자극물의 신체적 매력과 실험자극물과 피험자와의 태도 유사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 자극물의 모델의 나이는 18~25세, 26~35세, 45~55세와 체형 사이즈는 사이즈6, 사이즈10, 사이즈14로써 요인설계에 의해 9개의 실험자극물로서 피험자에게 실험자극물의 신체적 매력과 피험자와의

<표 1> 종속변인의 인상차원들

평가적 차원(10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하다 • 짐작다 • 안정되어 있다 • 신중하다 • 정숙하다 • 도덕적이다 • 생각이 깊다 • 예의바르다 • 깔끔하다 • 책임감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정하지 않다 - 짐작지 않다 - 들떠 있다 - 경박하다 - 정숙하지 못하다 - 도덕적이지 않다 - 생각이 얕다 - 예의바르지 않다 - 깔끔하지 않다 - 책임감 없다
고유값 : 6.78 설명력 : 22.6 % Cronbach's Alpha 계수 : 0.92	
역능적 차원(6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이다 • 결단력 있다 • 독립적이다 • 자신감 있다 • 이성적이다 • 지배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리적이지 않다 - 우유부단하다 - 의존적이다 - 자신감 없다 - 감성적이다 - 복종적이다
고유값 : 5.78 설명력 : 19.25 % Cronbach's Alpha 계수 : 0.91	
의모적 차원(5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에 띈다 • 세련됐다 • 화려하다 • 착용자가 날씬하다 • 어울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에 띄지 않는다 - 촌스럽다 - 수수하다 - 착용자가 뚱뚱하다 - 안어울린다
고유값 : 2.55 설명력 : 8.48 % Cronbach's Alpha 계수 : 0.73	
화친 차원(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하다 • 부드럽다 • 따뜻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설다 - 딱딱하다 - 차갑다
고유값 : 2.42 설명력 : 8.06 % Cronbach's Alpha 계수 : 0.70	
호오 차원(2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하다 • 좋은 사람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하지 않다 - 나쁜 사람이다
고유값 : 2.12 설명력 : 7.05 % Cronbach's Alpha 계수 : 0.65	

태도유사성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체형 사이즈가 6일 때가 장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실험자극물의 모델과 피험자 자신과의 태도 유사성에 대한 결과는 1988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1997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자극물의 통제가 잘 안된 것과 피험자의 차이로 인해 비교 분석이 어려운 것으로 설명된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용어 정의

1) 시간적 안정성(Temporal Stability)

본 연구에서 관찰한 1991년의 측정값과 2000년의 측정값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2) 의복 범주

의복을 크게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한복과 서양 의복으로 나눈다.

3) 의복의 유행성 차원

의복의 유행주기 형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며 클래식 의복과 유행 의복으로 분류된다.

4) 의복 착용자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 속에 의복을 착용한 인물 그림을 의미한다.

5) 한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착용자의 의복으로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행 한복과 클래식 한복으로 분류된다.

6) 서양의복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착용자의 의복으로 투피스 형태의 유행 서양의복과 클래식 서양의복 두 종류로 구성된다.

2. 가설

착용자의 인상효과와 시간적 안정성은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에 따라 인물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측정도구

자극물은 시간적 맥락(1991, 2000) × 의복범주(한복, 서양의복) × 유행성(클래식의복, 유행의복) × 체형(비만체형, 정상체형)변인의 요인설계에 의한 16개의 칼라드로잉 자극물이었고, 의미미분척도는 5개의 인상차원으로 구성된 의미미분척도 (26개의 형용사쌍)로 하였다.

4.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의 피험자는 1991년에는 충남대학교 남녀 대학생 각각 200명씩 400명이었고, 2000년에도 동일하게 충남대학교 남녀 대학생 각각 200명씩 400명이었다. 피험자 한명이 2개의 자극물을 평가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1년에는 8월30일에서 9월30일 이었고, 2000년에는 12월 1일에서 12월 31일 이었다. 기본 통계 자료 조사와 자극물의 평가방법은 7점의 의미미분 척도로 평가하였고 자료 분석은 1991년에서 측정된 자료와 2000년에서 측정된 자료를 통합하

여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26개의 형용사쌍이 5개의 인상차원으로 분류되었고(요인부하량 .45이상만 기록), 이 5개의 인상차원을 시간적 맥락에 따른 인상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5개의 인상차원은 <표 1>과 같으며, 변인들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다변량분석과 t-검증을 하였다.

IV. 결 과

<표 2>에서 변인들과 시간적 안정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의복범주 변인에서 한복은 서양의복보다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변인이었고, 유행성변인에서는 클래식의복이 유행의복보다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변이었다. 다음으로 5개의 인상차원과 시간적 안정성과의 관계를 보면 화친차원과 역능적 차원이 가장 시간적 안정성이 없었고 다음으로 평가적 차원, 다음으로 호오 차원이었으며 외모적 차원은 가장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인상차원이었다.

<표 3>에서 각 자극물들과 시간적 맥락과의 관계

<표 2> 변인에 따른 시간적 안정성

변인		인상 차원	평가적		역능적		외모적		화 친		호 오	
			1991	2000	1991	2000	1991	2000	1991	2000	1991	2000
의복범주	K	평균	.275	.394	-.636	-.439	-.220	-.064	.335	-.029	.250	.183
		t 값	-2.25		-3.10*		-2.23		4.77**		.93	
	W	평균	-.805	.144	.376	.687	.304	-.021	.054	-.360	.059	-.485
		t 값	-13.41**		-5.66**		4.66**		8.61**		6.81**	
유행성	C	평균	.159	.314	-.062	.144	-.271	-.382	.096	-.313	.064	-.080
		t 값	-2.82*		-2.91*		1.57		5.84**		2.02	
	F	평균	-.695	.221	-.202	.122	.624	.290	.295	-.084	.248	-.233
		t 값	-12.39**		-4.65**		1.10		5.54**		6.96**	
체형	L	평균	-.437	.134	-.112	.123	-.411	-.263	.466	.003	.196	-.028
		t 값	-8.08**		-3.23**		-2.20		7.14**		3.21**	
	N	평균	-.091	.397	-.151	.143	.489	.172	-.075	-.392	.114	-.283
		t 값	-7.60**		-4.31**		4.80**		4.53**		5.65**	

**p<.01, *p<.05

■ K:한복, W:서양 의복, C:클래식 의복, F:유행 의복, L:비만체형, N:정상체형

<표 3> 1991년과 2000년의 각 자극물의 인상차원 비교

자극물	인상 차원	평가적		역능적		외모적		호오		화친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평균	t 값
LCK	1991	.293	.13	-.633	-.41	-.842	-1.02	.154	-1.29	.574	4.05**
	2000	.280		-.584		-.717		.342		-.014	
LCW	1991	-.299	-3.47**	.593	-1.32	-.632	-.59	-.053	1.11	.314	4.56**
	2000	.051		.745		-.551		-.190		-.137	
LFK	1991	.122	-2.00	-.713	-1.87	-.220	-3.87**	.416	.83	.620	2.42
	2000	.340		-.470		.235		.296		.274	
LFW	1991	-1.87	-13.35**	.312	-3.95**	.057	.94	.269	6.64**	.355	-3.83**
	2000	-.123		.730		-.056		-.522		-.110	
NCK	1991	.389	-.94	-.580	-2.73	-.209	2.05	.225	.76	.004	2.02
	2000	.496		-.239		-.467		.117		-.327	
NCW	1991	.240	-1.77	.398	-1.62	.593	3.53**	-.078	3.38**	-.495	2.27
	2000	.427		.587		.181		-.549		-.749	
NFK	1991	.293	-1.63	-.623	-1.07	.411	-1.96	.208	1.41	.159	1.50
	2000	.450		-.480		.647		-.011		-.043	
NFW	1991	-1.30	-13.25**	.202	-4.84**	1.185	9.17**	.098	6.70**	.046	4.00**
	2000	.220		.687		.336		-.677		-.445	

**p<.01

■ K:한복, W:서양 의복, C:클래식 의복, F:유행 의복, L:비만체형, N:정상체형

를 살펴보면 비만체형의 클래식한복 착용자는 화친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만체형의 클래식 서양의복 착용자는 평가적차원과 화친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만체형의 유행한복 착용자는 외모적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비만체형의

유행서양의복 착용자는 외모적 차원을 제외한 모든 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상체형의 클래식한복 착용자는 모든 인상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상체형의 클래식서양의복 착용자는 외모적, 호오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정상체형의 유

<표 4> 시간적 안정성, 의복범주, 유행성, 체형 변인의 상호작용

변인	인상 차원	F 값				
		평가적	역능적	외모적	화친	호오
A시간적 맥락		189.68*	36.42*	4.71*	69.24*	40.56*
B 의복 범주		294.01*	657.62*	45.22*	43.01*	81.45*
C 유행성		145.83*		239.89*	20.37*	
D 체형		61.34*		255.13*	99.11*	13.02*
A*B		115.54*		29.90*		20.09*
A*C		94.29*				12.96*
A*D				29.23*		

*p<.05

<표 5> 평가적 차원에서 시간적 안정성과 의복범주, 유행성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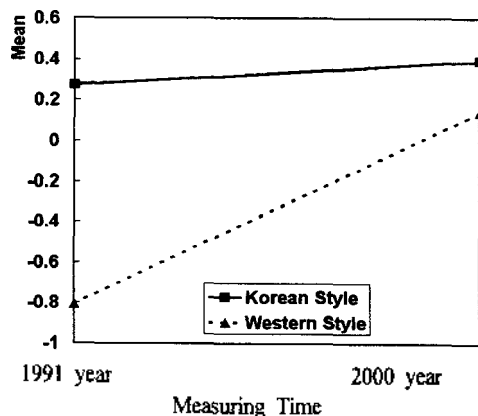
인상 차원	변인	의복 범주	시간적 맥락			유행성	시간적 맥락		
			1991	2000	t 값 =		1991	2000	t 값 =
평가적	한복		1991	.276a	t 값 = -2.25*	클래식 의복	1991	.159	t 값 = -2.82*
			2000	.394			2000	.314	
	서양 의복		1991	-.805	t 값 = -13.41**	유행 의복	1991	-.695	t 값 = -12.39**
			2000	.144			2000	.221	

**p<.01, *p<.05, a = 요인 점수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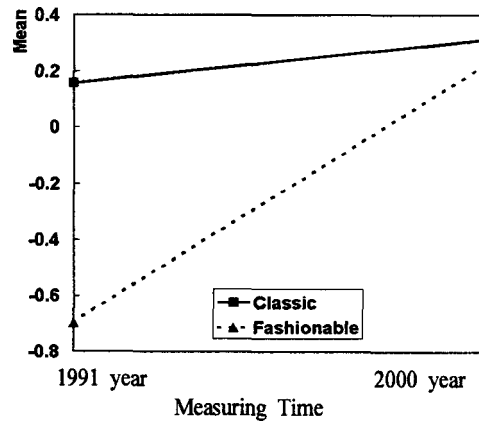
행한복 착용자는 모든 인상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정상체형의 유행서양의복 착용자는 모든 인상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4>에서 각 변인들과의 인상차원들과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시간적 맥락 변인은 모든 인상차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의복범주변인도 모든 인상차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유행성변인과 체형변인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가적 차원에서는 시간적맥락과 의복범주변인 그리고 시간적맥락과 유행성변인에서 상호작용이 있었다. 외모적 차원에서는 시간적맥락과 의복범주변인, 시간적맥락과 체형변인간에 상호작용이 있었다. 호오차원에서는 시간적맥락과 의복범주변인이, 시간적맥락과 유행성 변인간에 상호작용이 있었다.

<표 5>의 평가적차원에서는 시간적 안정성이 없는 착용자는 서양의복 착용자와 유행의복착용자가 가장 안정성이 없었고 다음으로 클래식 의복 착용자



<그림 2>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garment category in evaluation dimension.



<그림 3>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fashion-level in evaluation dimension.

였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를 볼 때 2000년은 1991년보다 한복과 서양의복에 대한 평가적 인상효과와 차이가 줄어들었고, <그림 3>에서도 2000년은 1991년보다 클래식 의복과 유행의복 사이에 평가적 인상효과와 차이가 매우 줄어들었다. 1991년에는 의복범주와 체형변인에 대한 지각자의 지각단서사용에서 범주의 분명한 인상효과와 차이가 있는 반면 2000년에는 지각단서들의 인상효과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2000년의 문화적 현상이 지각자의 인상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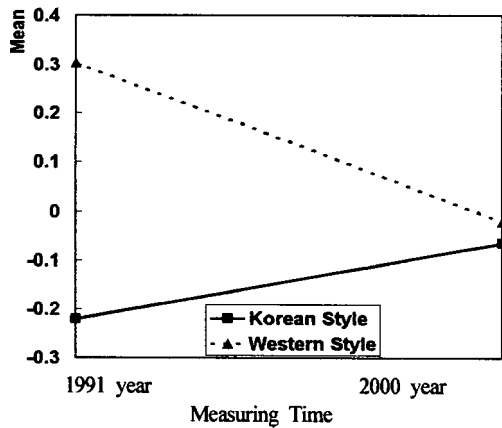
<표 6>의 외모적 차원에서는 시간적 안정성이 없는 착용자는 서양의복 착용자와 정상체형의 착용자였고 다음으로 한복 착용자와 비만체형의 착용자였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4>에서 2000년은 1991년보다 한복과 서양의복에 대한 외모적 인상효과와 차이가 매우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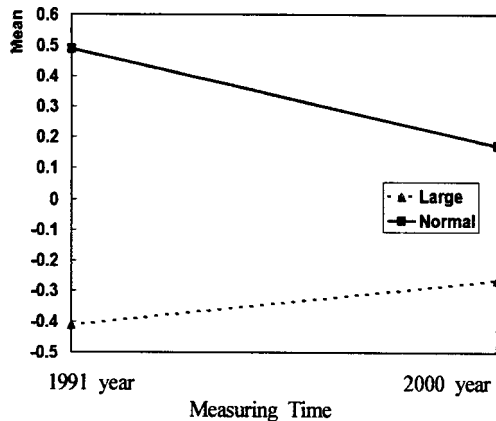
<표 6> 외모적 차원에서 시간적 안정성과 의복범주, 체형변인의 상호작용효과

인상 차원	변인	의복 범주	시간적 맥락		체형	시간적 맥락		
			1991	2000		1991	2000	
외모적	한복		1991	-.220a	비만	1991	-.411	t 값 = -2.20*
			2000	-.063		2000	.134	
	서양 의복		1991	.304	정상	1991	.487	t 값 = 4.80**
			2000	-.021		2000	.173	

**p<.01, *p<.05, a = 요인 점수 평균값



<그림 4>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garment category in appearance dim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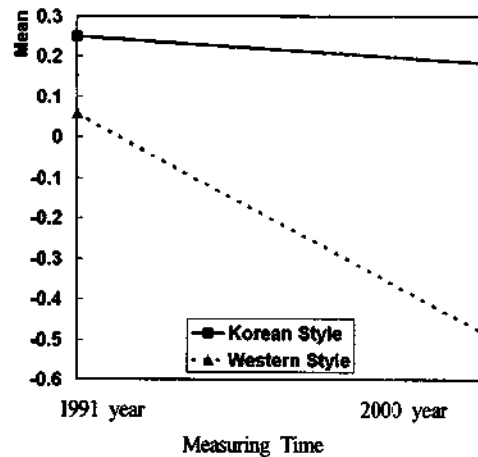
<그림 5>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wearer's body type in appearance dimension.

였고 <그림 5>에서는 2000년이 1991년보다 비만체

형과 정상체형에 대한 외모적 인상효과와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차이는 평가적 차원과 마찬가지로 2000년의 문화적 현상이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7>의 호오차원에서는 시간적 안정성이 없는 착용자는 서양의복 착용자와 유행의복착용자가 가장 안정성이 없었고 다음으로 클래식의복 착용자였다.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6>에서 2000년이 1991년보다 한복과 서양 의복에 대한 호오인상효과와 차이가 크고 <그림 7>에서는 클래식의복과 유행의복에 대한 인상효과가 2000년과 1991년이 반대의 인상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7>과 같은 결과는 2000년의 유행의복이 클래식의복의 경향이 강하여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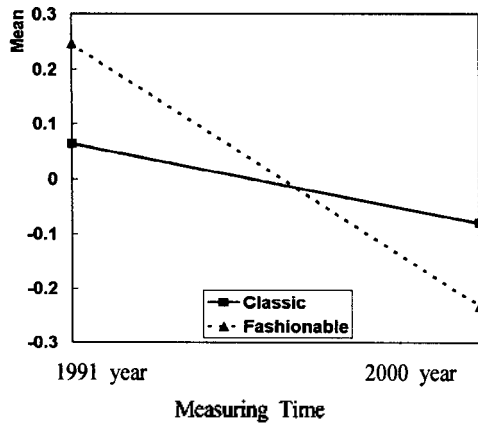


<그림 6>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garment category in good-bad dimension.

<표 7> 호오차원에서 시간적 안정성과 의복범주, 유행성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인상 차원	변인	의복 범주	시간적 맥락			유행성	시간적 맥락		
			1991	2000	t 값 =		1991	2000	t 값 =
호 오	한복		1991	.250a	t 값 = .94	클래식 의복	1991	.064	t 값 = 2.02*
			2000	.183			2000	-.080	
	서양 의복		1991	.059	t 값 = 8.61**	유행 의복	1991	.248	t 값 = 6.96**
			2000	-.485			2000	-.233	

*p<.05, **p<.01, a = 요인 점수 평균값



<그림 7>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measuring time and fashion-level in good-bad dimension.

V. 결론 및 논의

첫째, 변인별로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변인들을 보면, 의복범주변인에서는 서양의복보다 한복이, 유행성변인에서는 유행의복 보다 클래식의복이, 체형 변인에서는 정상체형보다 비만 체형이 더 시간적 안정성이 있었다. 즉, 시간적 안정성이 있는 변인은 한복이 가장 시간적 안정성이 있었고, 다음으로 클래식 의복, 다음으로 비만체형, 다음으로 유행의복 착용자 순이었고 서양의복 착용자와 정상체형의 착용자가 가장 시간적 안정성이 없는 변인이었다.

둘째, 인상차원별로 시간적 안정성을 보면, 외모적 인상차원이 가장 시간적 안정성이 있었고, 다음으로 호오 차원, 다음으로 평가적 차원이었고, 역능적 차원과 화친 차원이 가장 시간적 안정성이 없는

변인이었다.

셋째, 시간적 맥락과 상호작용이 있는 인상차원과 단서를 보면 평가적 차원에서는 서양의복과 유행의복이 시간적 맥락과 상호작용 효과가 크고, 외모적 차원에서는 서양의복과 정상체형이 시간적 맥락과 상호작용효과가 크다. 호오 차원에서는 서양의복과 유행의복이 시간적 맥락과 상호작용효과가 컸다.

의복범주, 의복의 유행성,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각 차원의 인상효과와 시간적 안정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각자의 인상형성에 있어 시간적 맥락의 중요성을 입증하였으며, 시간적 안정성은 연구 변인에 따라 차별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특히 한복과 클래식스타일과 비만 체형은 시간이 지나도 인상효과에는 많은 차이가 없는 것은 한복, 클래식 의복, 비만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이 쉽게 변화되지 않은 결과라고 사료된다. 반면에 서양의복, 유행의복과 정상체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상효과에 차이가 많은 것은 서양의복, 유행의복과 정상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은 시간에 따라 한복과 클래식 의복과 정상체형보다 변화가 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양의복 중 특히 유행의복 착용자와 정상체형에 대한 인상효과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데는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인상형성 연구에서 시간적 맥락의 중요성을 입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Kaiser(1990)의 맥락 이론을 지지하였으며, 따라서 과거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시점의 시간적 맥락에서 발생한 인상효과이므로 시간적 안정성 측면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의복의 인상효과를 조사하는 연구에서는 시간 이외의 다른 연구방법적

변인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991년의 유행의복과 2000년의 유행의복 스타일이 달라서 자극물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유행의복에 대해서는 시간적 맥락에 따른 인상효과와 차이를 확대 해석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희숙, 김재숙 (1992). "의복범주와 유행성 및 착용자의 체형이 대학생의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Fenigstein, A., Scheier, M. F., and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 Consult. Clinic Psychol.*, 43, pp. 522-527.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Personal Adornment*, McMillan Publishing Company, New York.
- Lennon, S. J. (1997).,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Further Evidence",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5(1), pp. 60-64.
- Lennon, S. J., Burns, L. D. (1993)., "Effect of Clothing on the Use of Person Information Categories in First Impression",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12(1), pp. 9-15.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6(3), pp. 195-203.